

칭의의 원인이 되는 믿음



사도 바울은 로마 4 장에서 칭의의 원인이 되는 믿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역사적 사실로 들어 가며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로마서 4:1-3 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4 :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 WHAT shall we say then that Abraham our father, as pertaining to the flesh, hath found?

로마서 4 :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2 For if Abraham were justified by works, he hath whereof to glory; but not before God.

로마서 4 :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3 For what saith the scripture?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먼저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 :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

1. 로마서 4 :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 WHAT shall we say then that Abraham our father, as pertaining to the flesh, hath found?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사실의 논증을 시작하면서 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선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산 대표자로 뽑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가 죄를 한번도 진 적이 없어서인가요? 전에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약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었고,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진 사람입니다. 우리 딸 은혜가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있는거야?”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없는 성현도 많은데 왜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하여 모두 육인데, 육에 속한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KJV 에는 *as pertaining to the flesh* 로 되어 있는데,

1 WHAT shall we say then that Abraham our father, as pertaining to the flesh, hath found? as pertaining to the flesh : 육신에 속하는 사람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NIV 에는

Romans 4:1 (NIV)

¹ What then shall we say that Abraham, our forefather, discovered in this matter?

희랍어 원문과는 너무 떨어진 의역입니다.

2. 로마서 4 :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2 For if Abraham were justified by works, he hath whereof to glory; but not before God.

이 구절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는 이 구절과 상관 구절인 창세기 15:6 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하신 구절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⁶ And he believed in the LORD; and he 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KJV)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말은 믿는다는 동사인 aman 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sedaq 입니다. Aman 에 대해서는 Bible Study 1,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넷째주 “아브라함의 믿음” 에서 공부했으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의(righteousness), sedaq 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의라는 말, *sedaq* 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용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5 : 1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Deuteronomy 25:1 (KJV)¹ If there be a controversy between men, and they come unto judgment, that *the judges* may judge them; then they shall justify the righteous, and condemn the wicked.

they shall justify (= *sedaq*) the righteous 의인은 의롭다 하고(*sedeq*)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구절에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하는 것은,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해준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이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하는 것을 관철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본질적 의로운 사람이나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 법적으로 선언해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sedeq* 입니다.

우리 아래 구절을 공부해 보십시오.

¹.욥기 13 : 18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¹⁸ Behold now, I have ordered *my* cause; I know that I shall be justified. (KJV)



우리 말은 의미가 분명치 않은데, 이말은 욥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I know that I shall be justified 로 수동태입니다. 남에 의해 의롭게 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edaq* 는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남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6 과 연결시키면,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의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전가시켜 준 의에 의해 의롭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신학적 용어가 전가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이런 의입니다. 이렇게 의가 전가되었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속은 여전히 더럽지만 의의 전가에 의해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의를 전가시켜 주신 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값없이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인 반면에, 칭의는 우리 밖에서 생긴 것입니다. 칭의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생긴 일이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번에 생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2 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했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강한 증거를 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살 때는 율법이 없었다.

두번째는 무할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는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율법의 행위에 의해 의를 얻은 것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 :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때는 율법이 없었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하겠다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사도바울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무할레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에 있어서는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에 개종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에 있어서 이방인으로 새로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유대적 기독교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 : 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유대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무할레로 이방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할레 상태에서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무할레시에 믿음에 의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레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할례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경건한 국부적 존재로 떠받드는 유대인에게 있어선 이것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 유대교에 있어서도 육체의 할례는 그 외면적 표징 보다는 내면적 표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10 :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말라

예레미야 4 : 4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4 :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3 For what saith the scripture?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행위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칭의의 원인이 되는 믿음입니다. 칭의의 원인이 되는 믿음은 아무런 선을 행한
것도 없어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4 :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행위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믿음은, 공로가 아닌 은혜로서 주어집니다(5 절). 3 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행위의 공로가 아닌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4 :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3 For what saith the scripture?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이것은 행위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칭의의 원인이 되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은혜에 의한 믿음을 말합니다.

사이드로 빠지는 것 같지만 한가지를 지적하고 가십시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보다 앞선다>

일반 은혜로 주어진 인간의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롭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가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산출하는 이유가 적극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 사고 방식이 기독교의 믿음과 모순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 사고는 인간에서 기원하고,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부분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아무리 춤을 추었다 한들 홍해 바다가 갈라졌겠습니까? 열두해 혈루증 여인이 적극적 방식을 가지고 주앞에 나갔다 한들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개인의 적극적 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 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 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의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창세기 15 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5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부름과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initiative 가 있습니다. .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을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주도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적극적 사고로 믿음을 가져봐야 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을 하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은,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거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계시가 완성됩니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칭의의 원인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믿음 속에 있는 어떤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